







시선

사설

철학 없는 행정을 넘어  
다시 ‘교육’으로 돌아가야

‘교육평가’의 정의에 대해 교육학자들은 다양하게 구분해 왔다. 먼저 R.W.타일러는 교육평가를 ‘목표달성도의 확인을 위한 것’이라 규정했다. 교육목표가 평가의 준거가 되어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해 획득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교육평가의 의미라고 간주하는 관점이다. M.S.스크리븐과 R.E.스테이크 등의 학자는 교육평가를 ‘교육과 관련된 어떤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과 그 산물’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교육평가는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명확한 평가기준을 수립한 이후, 이에 따라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최근 우리학교는 여기에 또 하나의 정의를 추가했다. ‘교육평가란 학점 평균치의 원활한 조정 및 관리를 위해 B0 이하 등으로 특정하게 규정된 강좌별 평균학점을 어긋남 없이 맞춰나가는 작업’이라는 정의가 그것이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이 새로운 정의의 마땅한 당위성을 찾기가 어려웠던지, ‘대학전체 성적분포를 단과대학 평가에 반영하고, 강좌별 성적평가 결과를 인사 및 재임용 자료로 활용한다’는 ‘위협’까지 동원했다.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가장 먼저 우리학교의 이번 조치는 ‘평가’와 관련한 그 어떤 교육학적 의미도 무화(無化)시키고 있기에 실망스럽다.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학교의 모든 수업에서 획득된 성과는 일률적으로 평균 B0가 될 것이다. 학업성과에 이르는 학생들의 수없이 다양한 과정과 노력 역시 평균 B0라는 성적으로 환산될 것이다.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어떻게 수립되든 간에, 그 평가의 결과는 결국 평균 B0라는 수치로 도출될 것이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결정인가?

학교 측은 ‘최하위 수준인 학점관리 현황’을 들먹이지만, 학점 인플레이션 논란은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낮은 학점’을 부여해 당장 드러나는 통계적 수치만 낮추는 ‘꼼수’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점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체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선 공정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평가 시스템을 세밀하게 개선하여 적합한 학점을 부여하는 정수(正手)가 요구될 따름이다.

더불어, 학교 측이 이 꼼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갑(甲)의 논리’로 밀어붙였다는 것 역시 큰 실망을 안겨준다. 무려 ‘학장회의’라는 권력 집단에서 태동한 이번 조치가 ‘단과대학 평가’와 ‘인사 및 재임용 평가자료’라는 무수한 교강사들의 취약점을 불모삼아 강행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고 ‘인간의 가치를 탐색’하자던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진정성마저 크게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치는 그 내용과 진행과정 모두에서 ‘경희 교육의 가치관’과 관련한 그 어떠한 철학도, 신념도 읽히지 않는다. 오직 ‘점수를 맞추기 위한 점’수와 ‘(대학)평가를 대비한 (성적)평가’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학교 측은 진정 이것이 경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이번 사안은 ‘조치의 문제’를 넘어서 ‘가치의 문제’다. 때문에 이는,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우려를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다.

호텔경영학과 최정길 교수  
대한경영학회 총회서  
회장으로 선출

미디어 여론동향 2014. 12. 1 ~ 12. 6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난달 28일 열린 대한경영학회 총회에서 최정길(호텔경영학) 교수가 제27대 회장에 선출됐다.(최정길 경희대 교수, 대한경영학회 27대 회장 선임/뉴스1, 2014. 12.1) 최 교수는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했으며, 버지니아폴리테크닉 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을 마쳤다. 이후 우리학교 호텔관광대학 호텔경영학과 학과장, 국제교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호텔관광대학 국제교류사업센터장, 관광산업연



이주의 주제 - 국제캠·정경대 투표과정 논란

‘신뢰 회복’이 건강한 학생사회의 기본이다.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길었던 학생회 선거가 지난 3일 매듭지어졌다. 서울캠퍼스(서울캠)의 경우 총학생회(총학) 투표율은 51.3%로 투표 인정기준인 50%를 간신히 넘었고, 국제캠퍼스(국제캠)의 경우 4년 만의 경선에 힘을 받아 전년보다 4%pt가량 상승한 64.3%의 유효투표율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단과대학 선거는 끝났지만, 서울캠 문과대학과 한의과대학, 국제캠 외국어대학 등은 첫 임후보기간 때 출마자가 없어, 재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아예 출마자가 없어 내년 3월까지 ‘비대위’체제로 움직여야 하는 곳도 존재한다.

학생사회의 낮은 투표율은 고질적인 치부다. 후보자가 없어 점점 축소되는 학생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비슷한 맥락이다. 이유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펙경쟁’으로 대표되는 현 사회의 풍토 속에서 관심 가질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럴듯하지만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른 사회문제에서 엿볼 수 있듯이 참여나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신뢰가 낮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주의 절차에 가장 기본인 투표과정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캠 정경

대학 유학생회 선거에서 실무위원, 심지어 후보자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된 일이었지만, 정경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관련해 짚막한 사과문과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이드라인만 내놓았다.

국제캠의 경우 2개의 총학생회 선거투표함과 1개의 총여학생회 투표함의 밀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투표함의 표는 결국 개표하지 않도록 결정됐다. 총학생회 투표자수의 13%의 표에 담긴 의견은 휴지조각이 됐다. 그러나 이런 문제 속에서도 중앙선관위는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관련 논의를 미뤄야하기도 했다. 이후 상황설명 대신 ‘당선공고’만 붙였다.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다. 100%를 요구하지 않지만, 선거의 근간인 유권자의 표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선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하는 선관위의 태도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지나지 않았다.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인가?

무엇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라지는 신뢰도는 아직 임기를 시작하지도 않은 대표자의 정당성을 흔들리게 만든다. 역대 선관위 위원장들이 늘 강조했던 ‘견제장치’가 있는 선관위 구성’이나 ‘적절한 선거시행세칙 구성’ 등의 실현이 절실한 이유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받는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우선돼야, 더 이상 ‘저조한 투표율’과 같은 기사제목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는다.

미참의료인상’ 수상자에 우리학교 네오플러스봉사단이 선정됐다.(한미참의료인상에 성영자/네오플러스봉사단, 경향신문, 2014. 12. 1) 한미약품과 서울시사회는 지난 1일 시상식을 갖고 네오플러스봉사단에 상금 3,000만 원과 상패를 전달했다. 네오플러스봉사단은 강동경희대병원 교직원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체로 의학, 한의학, 치의학 등을 결합한 통합 의료봉사활동을 국내·외에서 펼치고 있다. 특히 봉사단은 열악한 의료환경에 놓인 국가 대상의 활동에서는 일방적 의료혜택 전달을 지양하고 현지 의사를 교육하는 등의 ‘자립형 봉사모형’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지난 2일 제16대 회장에 강제상(행정학) 교수를 선출했다. (강제상 경희대 교수, 한국인사행정학회 16대 회장에/한국대학신문, 2014. 12. 2)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한국인사행정학회는 공공·민간 부문의 인력 관리를 연구하고 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단체다. 강제상 교수는 뉴욕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2005년 2월부터 우리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학과장, 입학관리처장 등을 역임했다.

연말 ‘당신’의 반성을  
권하고 싶습니다

세시봉

권오은 <편집장>



#1. 대학주보 활동을 하면서 단점을 하나 꼽자면, ‘종간’을 마치 ‘종강’처럼 느끼는 점이다. 아직 기말고사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학기 중 마지막 신문 만들듯 나면 그 학기를 다 털어낸 느낌이다. 심지어 4학년 2학기에, 두 번째 편집장에, 쌀쌀한 날씨까지! 청승 떨기 좋은 요소를 갖춘 이번 신문제작 중 마음을 다잡기 위해 대학주보 페이스북 커버사진을 바꿨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겠다.’

종간과 종강이 다르듯, 타협과 협력은 그 결이 다르다. 그러나 돌아볼 때마다 협력을 방자해 현실과 타협한 것들이 눈에 밟힌다. 취재 도중에 포기한 것들, 소문은 무성하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보도하지 못한 것들, 믿고 이야기를 털어냈으나 책임지지 못한 것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칼럼이 아니라 반성문을 써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혼자 반성문을 쓰기에는 속이 좁다. 같이 쓸 사람들을 꼽아봤다.

#2. 가장 먼저 ‘동대문구청’이 떠오른다. 올해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임대업자들의 폐쓰기에 얻은 것은 ‘생채기’에 불과했다. 결국 행정심판으로까지 떠 났던 동대문구청의 결정은 그런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었다. 현재 SPACE21 건설사업단과 동대문구청 간 협의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그동안 느꼈던 실망을 기억하면 선불리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음 신문에는 반성할 사람보다는

자랑할 사람으로 넘치길 바라본다

이사회도 반성문을 쓰면 좋겠다. 올해 초 ‘관선이사체제’까지 걱정하게 했던 이사회는 늘 지적받았던 투명한 이사회 운영의 ‘기초’인 회의록 공개를 두고 못매를 맞았다. 10월 31일에 열렸던 이사회 회의록은 이번에도 규정과 달리 지난 12월 2일에서야 올라왔다. 그나마 평소보다 빨라진 점을 높이 평가해야할까.(늘 내용은 길지 않던데...)

끝으로 우리학교 청소년노동자 단체협상 중인 용역업체에게도 반성을 권한다. 사실 지난해 단체협상이 올해 7월에야 비로소 맺어진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노동자가 올해 임금협상을 하지 않은 기간은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도 지지부진한 과정이고, 다시 단체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걱정된다.(그렇다고 해도 직고용은 ‘유연화’라는 표현으로 미뤄지겠지만.)

#3. 글쓰는 이의 좁은 속을 닦아서 그런지, 이 ‘세시봉’도 비좁아 함께 반성문을 쓸 사람을 넉넉히 적을 수 없어 아쉽다. 독자 여러분 중 대학주보에 한 번쯤 (좋지 않은 일로) 이름 올랐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알아서 들 하시길! 대학주보는 이번 신문의 다짐처럼 깨끗하게 반성문 쓸 이들을 찾아다니겠지만, 그래도 다음 신문에는 반성할 사람보다는 자랑할 사람으로 넘치길 바라본다.

PS - 못된 편집장 탓에 고생한 모든 이의 인내에 감사하다. 남은 임기 조금 더 고품격하고 가겠다.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 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환 | 주간 김민전 | 편집장 권오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 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레기) |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기림)/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수대사, “소송까지 준비”... 산협단, “재심의 요청시 규정대로”

〈수원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산학협력단〉

수원대 이인수 총장 박사학위 논란

이시은 기자 dtdlms77@khu.ac.kr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박사학위 논문표절에 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박사학위 유지결정에 대해 ‘수원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수대사)’ 측은 우리학교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지난달 13일 우리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총장이 지난 1998

〈수원대 총장 논문 논란 경과〉

1998.02	수원대 이인수 총장 우리학교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2014.05	‘수원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수대사)’ 측, 이인수 총장의 박사논문 표절심사 요청
2014.11	우리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박사학위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
	수대사 측, 즉각 이의제기 신청

년 우리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행정학 박사학위를 논문표절임에도 유지하기로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피조자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특정부분을 인용 표기 없이 서술한 것은 논문 표절에 해당한다”라며 “하지만 당시 본교에 연구윤리관리 규정이 없었고, 문제의 부분을 제외해도 논문의 구조나 결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박사학위 취소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대사측은 즉각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수대사 측은 “논문기획 단계부터 논문사례연구부분까지 모두 표절임에도 ‘특정부분’으로 인정하고 학위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결정”이라며 “경희대 총장 명의로 정식 논문표절에 대한 공표를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며, 학위를 즉각 취소하는 것이 경희대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학교 측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사했다는 입장이다. 산학협력단 정

종천 직원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4항”에 따라 위원회가 존속할 수 있는 6개월간 공정하게 심사했을 뿐”이라며 “재심에 관해서도 우리학교의 규정대로 판정결과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대사 측은 이의제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학위취소판정을 위한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밖에 우리학교에서 1인 시위나 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인 상태다.



## “‘서구’ 빌려 인문학 허세부리기 아닌지 성찰해야”

후마 4년 평가 심포지엄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 4년 평가 심포지엄’이 ‘후마니타스가 후마니타스 4년을 말한다’는 주제로 지난 5일 청운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1년부터 시작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교양교육이 올해로 4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념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오는 2016년부터 시작되는 ‘후마니타스 2.0’으로의 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4개의 발표와 교수들의 토론으로 구성 됐다. 각각의 발표주제는 이문재(후마)교수의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설립배경 및 교육목표’, 고봉준(후마)교수의 ‘우리는 왜 대학에 있는가’, 그리고 이병태(후마)교수의 ‘후마니타스 칼

리지, 그 지향과 현재’, 마지막으로 채효정(후마)교수의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후마니타스인가?’로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에서 이문재 교수는 “교양 교육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며 후마의 목표처럼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교육’”라며 후마의 본래 목표를 상기시켰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고봉준 교수는 “학생을 대하는 태도와 강의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수를 줄이고, 토론을 통해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주는 일”이라며 강의방식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병태 교수는 “후마가 추구하는 가치가 보편성이 크고 추상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학생들이 ‘환대’, ‘우애’와 같은 미래적·보편적 개념의 느낌을 일상에서 실재적으로 겪고, 느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

는 “책의 콘텐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내용의 분산배치도 필요하다”며 “시민교육, 글쓰기, 중핵교과 간의 유기성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채효정 교수는 최근 직접 느낀 후마 교육에 대한 회의감, 피로감을 토로했다. 그는 “마냥 서구 특히 북유럽에호주의식의 관점을 통해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허세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한다”며 “그동안 후마 수업이 주목하지 못했던 ‘노동하는 삶’을 다뤄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많은 교·강사가 의견을 나눴다. 이기라(후마) 교수는 “시간이 갈수록 후마 강의를 학생들에게 얼마나 스며들고 있는지 고민이 많다. 교수가 말하는 이상과 학생들이 느끼는 현실에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현실과 후마가 지향하는 가치를 연결시켜 학생과 선생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W&M’ 팀, 버려지는 빗물 활용 발표

학생 물 환경정책·기호 공모전 수상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환경부에서 주최한 ‘학생 물 환경 정책·기술 공모전’에서 지난 11월 20일 우리학교 ‘W&M’ 팀이 우수상(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W&M’ 팀은 우리학교 정기문(사회기반시스템공학 2010)군과 최정욱(사회기반시스템공학 2009)군으로 구성됐다.

‘W&M’ 팀은 학교 건물의 옥상에서 빗물을 모으는 ‘물탱크’와 ‘우수관로’를 구축하는 생각을 내놔다. 빗물은 하수도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W&M’ 팀은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빗물을 상수도 시스템과 연동시켜 모아진 빗물을 조경용수나 세정용수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B/

C(Benefit cost analysis, 편익비용분석) 수치는 0.35로 낮게 분석돼 투자한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첫 공모전에 참가한 정 군은 “내가 스스로 낸 아이디어를 구현하면서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꼈다”며 “공모전이 학부 때 배웠던 과정을 종합해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상수도 시스템과 연동된 우수관로 개념도

### ▶1면에서 이어짐

이어서 A직원은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성적산출규정을 준수해달라는 협조요청일 뿐 협박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학생에게는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부분 영어강의 또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성적산출방법이 바뀔 전망이다. 교무처 학사지원과 측은 “다음 학기부터는 부분 영어강


의에 한해, 성적평가기준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안이 논의중이며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영어강의는 완전 영어강의와 부분 영어강의 구분없이 모두 절대평가로 성적이 산출되고 있지만, 2015학년도 1학기부터는 완전 영어강의만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한다.

부분 영어강의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로 바뀌어 ‘학점표준화 제도’에 따라 다른 강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목의 전체 수강생 상위 40% 이내만 B+이상의 학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서울] 2014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시간표																				
주관 학과	이수 구분	학수번호	강의명	교강사명	교시	강의시간	정원	강의실	언어구분	비고	주관 학과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의명	교강사명	교시	강의시간	정원	강의실	비고
경영대	전공기초	MGMT100149	경영통계학	서상윤	2교시	13:00~15:45	65	오22			기초교과	기초교과	GEB1201550	영어1	Bryan Cheron	2교시	13:00~15:45	36	정402	Basic
		MGMT100349	책임경영	안지웅	1교시	09:00~11:45	65	오22		GEB1201551			영어1	Robert Poirier	1교시	09:00~11:45	36	정403	Intermediate	
		ACCT100149	회계원리	안성희	1교시	09:00~11:45	100	오23		GEB1201552			영어1	Exan Desloges	2교시	13:00~15:45	36	정403	Intermediate	
		MGMT200149	경영정보시스템	전정숙	2교시	13:00~15:45	65	오21		GEB1202550			영어2	Jordan Davidson	1교시	09:00~11:45	32	정502	Basic	
		MGMT200249	마케팅원론	이종연	1교시	09:00~11:45	65	오20		GEB1202550			영어2	Stephen Mang	2교시	13:00~15:45	32	정502	Basic	
	전공필수	MGMT200449	재무관리	Maria Kim	1교시	09:00~11:45	65	오21	영어강의		GEB1202551	영어2	Gregory Napp	1교시	09:00~11:45	32	정503	Intermediate		
		MGMT200549	조직행동론	이명선	2교시	13:00~15:45	65	오20		GEB1202552	영어2	Shelley Price-Jones	2교시	13:00~15:45	32	정503	Intermediate			
		ACCT100249	관리회계	나병중	2교시	13:00~15:45	100	오23		GEB301549	시민교육	이근후	2교시	13:00~15:45	37	정404	2014학번 수강불가 강좌			
		KL100149	국어학개론	홍창은	2교시	13:00~15:45	60	문308		GEB301550	시민교육	우대식	2교시	13:00~15:45	37	정504	2014학번 수강불가 강좌			
		HE100149	인간과생활환경	채해원	2교시	13:00~15:45	30	생402												
이과대	전공기초	MATH110149	미적분학Ⅰ연습1	김세구	2교시	13:00~17:50	35	이4502	기간강의기간: 1/5~1/14		후 마 니 타 스 칼 리 지	배분이수교과(4명역)	GED112549	캐스퍼무언인가?	정훈	1교시	09:00~11:45	60	정301	
		MATH110249	미적분학Ⅰ연습2	박정훈	1교시	08:00~12:50	35	이4505	기간강의기간: 2/22~2/28				GED1208549	불완전신설기후변화	이원	2교시	13:00~15:45	60	정301	
		PHY110249	물리학Ⅰ실험2	이승준	2교시	13:00~15:45	20	문309		GED1208549			위기의생태계와미래	구경아	2교시	13:00~15:45	60	정305		
		PHY110250	물리학Ⅰ실험2	김승훈	1교시	10:00~11:50	20	문301	팀타칭	GED1208549			통사인예술의혼유사	김희연	2교시	13:00~15:45	60	정306		
		PHY110250	물리학Ⅰ실험2	안형선	1교시	13:00~15:45	20	문402	부분영어	GED1208549			소수자문화	박하윤	2교시	13:00~15:45	60	정308		
	전공선택	BIOL110249	생물학Ⅰ실험2	김지훈	2교시	16:00~17:50	20	문301	팀타칭	GED135849	정치학적 사유의 원리	정복철	2교시	13:00~15:45	60	정301				
				정창수	1교시	08:00~10:45	24	문309	팀타칭	GED1510549	동양사상문화와 유물도	이영환	2교시	13:00~15:45	60	정309				
				서태중	2교시	11:00~12:50	40	이동403	팀타칭	GED1601549	2047(한글)사상사회의와 창의적문제해결	성보훈	2교시	09:00~11:45	60	정312				
									GED1621549	영화와강의의혼자이민(미주이동)	이성진	2교시	13:00~15:45	60	정312					
									GED1630549	기후와역사	이준호	1교시	09:00~11:45	60	정305					
장려대	전공기초	GEOG404049	세계지역의이해	대니얼 유가야	1교시	09:00~11:45	60	이동801	부분영어		배분이수교과(7명역)	GED1703549	비판적사고문화유전자	박근조	1교시	09:00~11:45	60	정301		
		GEOG201149	토양지리학	김승현	2교시	13:00~15:45	60	이동801		GED1704549		사회과학과가설검정기술	송태현	2교시	13:00~15:45	60	정307			
		ECON101149	경제학원론	김창숙	1교시	09:00~11:45	50	정304	부분영어	GEE1113549		광견의대화술-갈등조정기술	신은혜	2교시	13:00~15:45	48	정303			
		ECON100349	경제수학	유종순	1교시	09:00~11:45	40	정303		GEE1191549		인격과인간	정성원			100		온라인강의		
		ECON100449	경제통계학	유종순	2교시	13:00~15:45	40	정303		GEE1157549		부동산학개론	이창진	1교시	09:00~11:45	60	정409			
	전공필수	TRADE200449	국제경제론	배정원	2교시	13:00~15:45	50	정304		GEE1601550	골프	이성민	1교시	10:00~11:50	30	정409	청문관 (골프부)			
		PSC303449	정치학방법론	이재욱	2교시	13:00~15:45	40	정302		GEE161549	배드민턴	강정훈	1교시	10:00~11:50	30	정409	청문관 (농구부)			
		GEC110149	우리개사는세계	정외진	1교시	09:00~11:45	45	정202	2014학번 수강불가 강좌	GEE1638549	조깅과 워킹	홍태선	2교시	10:00~11:50	30	정409	청문관 (헬스부)			
		GEC110150	우리개사는세계	정순국	2교시	13:00~15:45	45	정202	2014학번 수강불가 강좌	GEE1657549	현대생활과 체육	손홍기	1교시	13:00~14:50	60	정409	청문관 (헬스부)			
		GEB110149	글쓰기1	차선일	1교시	09:00~11:45	25	정302		GEE1650549	토탈트러닝(세력및매매관리)	이재택	2교시	13:00~14:50	30	정409	청문관 (헬스부)			
후 마 니 타 스 칼 리 지	기초교과	GEB110150	글쓰기1	추산진	2교시	09:00~11:45	25	정303		자유이수교과(체육)	자유이수교과(체육)	GEE1611549	동계스포츠스노우보드	고인태	집중이수	30	스키장	집중이수		
		GEB110151	글쓰기1	권오연	2교시	13:00~15:45	25	정302				GEE1609549	동계스포츠스노우보드	김태형	집중이수	30	스키장	집중이수		
	GEB1102349	글쓰기2	홍창은	1교시	09:00~11:45	25	정304		자유이수교과(예술)			자유이수교과(예술)	GEE1737549	영화속그림읽기	이현민	1교시	09:00~11:45	60	정205	
	GEB1102350	글쓰기2	정문기	2교시	13:00~15:45	25	정303						GEE1718549	매체와현대예술	박영균	2교시	13:00~15:45	60	정205	
	GEB110251	글쓰기2	구봉근	2교시	13:00~15:45	25	정304													
	GEB210149	영어	Joseph Faraci	1교시	09:00~11:45	36	정402	Basic												
											강좌 수	64								
후마니타스칼리지																				

후마니타스칼리지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

2015 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 특별모집 안내

1.학과소개

글로벌 경영학과	-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대응하는 실무중심의 국제화 교육 - 학계의 권위자를 비롯해 경영 현장의 전문가를 초빙한 교수진 구성 - 재학생과 졸업생을 연계한 글로벌 리더 양성
스포츠 경영학과	- 스포츠산업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펼칠 수 있는 전문 스포츠경영학 양성 - 국제 스포츠 시장 및 스포츠 기업 경영 전문가로 교수진 구성
건설안전 경영학과	- 고도의 이론과 실무교육으로 선진화된 건설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 선진 건설 기술 및 안전경영능력 배양 - 원우회 활성화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성

2.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구분	지적	전형방법
신입생	가.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서류심사 및 면접
편입생	가.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1개학기 이상 이수한 자 나. 3과목 이상 수강하여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전형일정

원 서 접 수	2014.12.15 (월) ~ 2015.01.02 (금)
접 수 방 법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http://gstm.khu.ac.kr)
전형일(면접)	2015.01.10 (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합격자발표	2015.01.14 (수)

4.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입학원서 (본 대학원 홈페이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학위번호 기재) 1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학번을 기재)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군인은 복무학원서 1부 사진 (인타넷 원서접수에 업로드))	인터넷 접수 후 병무영식을 인쇄하여 우편으로 송부

5. 전형료 60,000 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tm.kh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201-2130~3 / 이메일: khwb7000@khu.ac.kr)



# 보도

## 국제캠 단과대학 대표 선출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단과대학 학생회 개표가 완료됐다. 유일하게 경선으로 치러진 생명과학대학의 경우,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친 KHU’ 선거운동본부(선본)이 당선됐다. 이밖에도 ‘친 KHU’ 선본으로 연합출마한 응용과학대학,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에서도 찬·반 투표를 통해 당선에 성공했다. 체육대학, 국제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역시 단선으로 선거를 진행해 대표자를 선출했다. 단일 후보로 출마한 동아리연합회는 ‘Klass Up’ 선본이 당선됐다. 최초 후보등록 기간 동안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외국어대학은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 당선자 명단

#### 공과대학

투표율 60.26% 득표율 88.21%  
정 : 김상준(기계공학 2010)  
부 : 정명준(화학공학 2010)

#### 국제대학

투표율 70.5% 득표율 89.6%  
정 : 고상현(국제학 2013)  
부 : 이정혁(국제학 2013)

#### 동아리연합회

투표율 60.8% 득표율 83.03%  
정 : 유매연(환경학 및 환경공학 2013)

#### 생명과학대학

투표율 67.52% 득표율 56.93%  
정 : 예상진(식품생명공학 2010)  
부 : 김대일(식품생명공학 2013)

#### 예술디자인대학

투표율 57.99% 득표율 85.7%  
정 : 전치화(연극영화학 2010)  
부 : 박시내(의류디자인학 2013)

#### 응용과학대학

투표율 74.38% 득표율 94.56%  
정 : 고아라(응용수학 2012)  
부 : 김형준(응용수학 2010)

#### 전자정보대학

투표율 67.91% 득표율 91.1%  
정 : 손 권(생체의공학 2010)  
부 : 윤영상(전자·전자공학 2011)

#### 체육대학

투표율 58.8% 득표율 91.7%  
정 : 김병경(체육학 2009)  
부 : 이승훈(스포츠지도학 2010)

### ▶1면에서 이어짐

이후 개표를 진행하던 중 국경 투표함 역시 제대로 밀봉되지 않았다는 것이 뒤늦게 발견됐다.

총여 개표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선본과 논의 끝에 개봉하기로 결정했다. 중선거권위 남슬기(스페인어학 2013) 위원은 “예디의 투표함을 확인했을 때 오차율도 1% 미만으로 크지 않아, 선본과 합의해 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학 선거개표에서는 밀봉되지 않은 투표함이 결국 ‘무효처리’됐다. 개표 초반 중선거권 위 측은 투표함 문제를 마지막에 양 선본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교육관, 국제대학, 생명과학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전자정보대학 2투표소의 투표함이 개표된 후 ‘Klass Up’ 선본에서는 “다른 투표소들의 개표가 이뤄진 다음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며 국제경영대학, 체육대학의 투표함을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중선거권위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양 선본과 논의한 결과 밀봉되지 않았던



결국 6시 30분 경 양 선본이 모두 퇴장해 중선거권위가 선본의 참관 없이 단독으로 남은 투표함을 개표하기로 결정했다

국경과 체대의 투표함을 ‘무효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체대는 투표함의 문제가 발견된 후 교체한 투표함에 들어있던 7표는 유효표로 인정했다. 중선거권위의 부주의로 인해 체대와 국경 투표함의 ‘744 표’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투표함 ‘무효처리’를 결정한 직후 ‘Klass Up’ 선본은 개표소에서 퇴장했다. ‘Klass Up’ 선본 총학 장동석(국제학

2006) 정후보는 “개표뿐만 아니라 지속적 으로 발생해 왔던 미흡한 선거 운영에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기 위해 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친 KHU’ 선본 유문열(기계공학 2008) 선본장은 “한 선본만 남아 개표에 참관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양 선본이 같이 개표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면, ‘친 KHU’선본도 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결국 오전 6시 30분 경 양

선본은 모두 퇴장해 개표장소에는 중선거권 위 위원들만 남았다.

중선거권위는 논의 결과 선본의 참관 없이 단독으로 남은 투표함을 개표하기로 결정했다. 선본 없이 ‘전자정보대학 1투표소’와 ‘외국어대학 투표소’를 개표한 끝에 오전 7시 5분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이후 오전 9시 중선거권위는 별다른 설명없이 ‘당선 공고’만 온라인으로 게재했다.

## 한기연 결국 제명... 회칙논란부터 고소까지 7개월

### 한기연 논란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방누리 기자 nurib423@khu.ac.kr

【서울】 지난 4일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은 운영위원회(운영위)를 통해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한기연)를 결국 제명했다. 지난 4월부터 ‘동아리회원 명부 조작여부’로 논란이 불거진 지 약 7개월 만의 결론이다.

지난달 20일 총동연은 운영위를 통해 이미 한 차례 한기연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운영위에서 총동연이 별도로 녹취를 하지 않아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한기연 측이 회의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지난 4일 재차 운영위가 열린 것이다.

### 학생 자치 위원회에 학생 아닌

### 한기연 간사 참석... 발언권 박탈

이 자리에는 총동연 황준영(호텔경영학 2010)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5명의 분과장, 한기연 간사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과

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는 시작됐으나, 학생 자치 위원회인 총동연 운영위에 한기연 측 대표로 학생이 아닌 한기연 간사가 참석한 것을 둘러싸고 발언권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황 회장은 한기연 간사의 발언권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참석자 과반수의 반대로 한기연 간사의 발언권은 저지됐다.

한편 한기연 간사는 발언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한기연 측의 입장을 발언했다. 그는 “학생이 안 온 이유는 무고하게 고소당한 학생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호소하며 “학생을 보호하고 싶었다”고 참석 이유를 밝힌 후, “사전에 경고 공지도 없이 제명 여부가 운영위를 통해 확정된 것은 문제라겠다”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 동아리에 경고를 부과할 때 따로 공지하지 않고 다만 기록으로 남겨둔다”며 “때문에 경고조치는 별도로 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기연이 속한 종교분과의 분과장은 “총동연의 회칙에는 제명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그

런데 이번에는 어떤 독려의 방안 없이 바로 제명을 언급하여 학생 자치기구 회칙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나 싶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제명된다고 해서 한기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동아리로서의 지원이 없어질 뿐 한기연을 해체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대응했다.

### 한기연, ‘명의도용은 무협의’

### 총동연, ‘소급되면 유죄’

격론이 이어졌고, 이후 식순대로 한기연 제명 재투표가 강행됐다. 그 결과 총 7표 중 찬성 6표, 반대 1표로 한기연 제명 투표가 가결됐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한기연 간사는 경찰서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명의도용이 무협의를 재차 강조했다. 반면 총동연 측에서는 “그것은 개정된 회칙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기에 그런 것”이라며 “경찰이 무협의 판정한 2014년 1학기의 사건 이후, 개정회칙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4년 2학기 이후에도 한기연이 명의도용 및 명단 허위작성을 하다가 적발된 만큼 이번 제명조치는 합당하다”라고 반박했다.

### 〈양측 명의도용 및 회칙위반여부를 놓고 공방〉

**총동연**  
회원 명부를 조작한 동아리를 징계하는 것은 총동연이 할 일, 실제로 한기연이 명의를 도용한 증거가 포착돼 제명을 논의한 것

**한기연**  
명의를 도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한기연과 이야기 해서 해결해야 함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체크하는 것은 부당함.

**한 학생이** “한기연이 동의 없이 회원 명단에 올려 연락”한다며 경찰 고발 입장 밝힘.

**대표자회의에서** 개인이 아닌 총동연이 고발해야 한다고 결정.

**총동연 회장,** 경찰에 명부문제 관련 진정서 제출 (5/15)

**경찰,** “내사결과 혐의 입증 불가” 무혐의 처리.(9/14)

[국제] 2014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시간표												
대학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사명	강사명	교시	시간	전원	장소	영어강	비고		
응용 과학 대학	전공기초	AMTH1001-01	미분방정식	전반기 : 김광수 후반기 : 배재형	12시	0800~1145	57	전221 열304	2014/12/22~2015/01/02 2015/01/05~2015/01/14			
		AMTH1001-02	미분방정식	전반기 : 강 군 후반기 : 김희미	12시	0800~1145	57	전223 열304	2014/12/22~2015/01/02 2015/01/05~2015/01/14			
		AMTH1002-01	미분적분학1	전반기 : 송병일 후반기 : 최진혁	12시	0800~1145	46	전101 열407	2014/12/22~2015/01/02 2015/01/05~2015/01/14			
		AMTH1002-02	미분적분학1	전반기 : 안영주 후반기 : 김원수	22시	1300~1545	45	전101 열401	2014/12/22~2015/01/02 2015/01/05~2015/01/14			
		AMTH1003-01	미분적분학2	전반기 : 김도윤 후반기 : 박지연	12시	0800~1145	45	전102 열402	2014/12/22~2015/01/02 2015/01/05~2015/01/14			
		AMTH1003-02	미분적분학2	전반기 : 차준성 후반기 : 박기성	12시	0800~1145	45	전103 열403	2014/12/22~2015/01/02 2015/01/05~2015/01/14			
		AMTH1003-03	미분적분학2	전반기 : 신진숙 후반기 : 박정주	22시	1300~1545	45	전102 열402	2014/12/22~2015/01/02 2015/01/05~2015/01/14			
		AMTH1003-04	미분적분학2	전반기 : 이영주 후반기 : 박정주	22시	1300~1545	46	전103 열403	2014/12/22~2015/01/02 2015/01/05~2015/01/14			
		AMTH1004-01	선형대수	전반기 : 한성용 후반기 : 남궁윤미	12시	0800~1145	44	전217 열317	2014/12/22~2015/01/02 2015/01/05~2015/01/14			
		APHY1001-01	물리학2	이석준	12시	0900~1145	60	열408				
	자유이수교과	APHY1003-01	물리학및실험2 (이론)	김진성	12시	0900~1050	30	열407				
		APHY1003-01	물리학및실험2 (실험)	김진성	22시	1100~1250	30	열405				
		APHY1003-02	물리학및실험2 (이론)	김진성	12시	0900~1050	30	열407				
		APHY1003-02	물리학및실험2 (실험)	김진성	22시	1100~1250	30	열406				
		APHY1003-03	물리학및실험2 (이론)	송현욱	12시	1300~1450	30	열407				
		APHY1003-03	물리학및실험2 (실험)	송현욱	22시	1500~1650	30	열405				
		APHY1003-04	물리학및실험2 (이론)	송현욱	12시	1300~1450	30	열407				
		APHY1003-04	물리학및실험2 (실험)	송현욱	22시	1500~1650	30	열406				
		APHY1004-01	일반물리	김동현	12시	0800~1145	60	열311				
		APCH1002-01	화학및실험2 (이론)	이성열	12시	0900~1050	30	열446				
생명과학대학	전공기초	APCH1002-01	화학및실험2 (실험)	이성열	22시	1100~1250	30	열310				
		APCH1031-01	일반화학	오세환	22시	1300~1545	50	열408				
		BIOT003-01	일반생물	김재형	12시	0900~1145	50	열19	영어강의			
	공과대학	ME205-01	공학프로그래밍1	이진진	22시	1300~1545	40	열203				
		NE206-01	공학수학2	박성준	12시	0900~1145	40	열367				
		CSE102-G01	프로그래밍기초	이승형	12시	0900~1250	40	열807				
		CSE202-G01	고급개체지향프로그래밍	한용규	22시	1300~1650	40	열809				
	전자정보대학	CSE203-G01	컴퓨터구조	김영만	22시	1300~1545	40	열806		부산공USC노드에서 이수한 수강 가능. 전정 재학생 수강불가		
		CSE329-G01	JAVA프로그래밍	Asad Masood Khanak	12시	0900~1250	40	열811	영어강의			
	전공선택	CSE222-G01	문헌초재적과정프로그래밍	나상호	12시	0900~1145	40	열806		부산공USC노드에서 이수한 수강 가능. 전정 재학생 수강불가		
		GEOT101-G01	우리가사는세계	양영희	12시	0800~1145	40	열409		2014학번 수강불가		
후마니타스칼리지	총학과	GEOT101-G01	우리가사는세계	양영희	12시	0800~1145	40	열409		2014학번 수강불가		
후마니타스칼리지												

# 2014학년도 동계방학

## 취업집중 집단 컨설팅(Do It Now) 모집 안내

1. 대 상 : 경희대학교 4학년 학부생 및 2014.8월 학부졸업자  
(대기업 공채 위주의 입사 희망자에게 추천함)

2. 교육기간  
- 월요일반 (오신중 교수) 교육 : 2014. 12. 22(월) ~ 2015.02.09.(월) 09:00~12:00 (매주 월요일)  
- 화요일반 (서면석 교수) 교육 : 2014. 12. 23(화) ~ 2015.02.10.(화) 09:00~12:00 (매주 화요일)  
- 상기 각 요일별 40명씩 모집 예정이며 중복신청은 불가함

3. 신청기간 : 2014. 12. 3 (수) ~ 예치금 선착순

4. 교육장소 : 호텔관광대학 502호

5.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신청 - 해당 프로그램 신청(dotnow)  
- 졸업생은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job@khu.ac.kr)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 dotnow(지원자이름)  
- 참가신청서만 제출하고 입금하지 않을 경우 신청접수가 보류됨

6. 참가비(예치금) : 5만원(본 예치금은 교육 수료할 경우 전액 환불)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78-910011-91404(경희대학교 취업진로프로그램) \*본인 명의로 입금 요망  
- 1회 이상 무단 지각, 결석 및 매일 과제 미제출자는 환불 없이 즉시 퇴출 조치  
- 취소환불 신청은 2014.12.19.까지 가능하며 이메일로 제출(job@khu.ac.kr)  
※ 취소 이메일 제목: dotnow취소신청(지원자이름 및 학번)

7. 참가자 의무사항  
- 취업준비도 검사 총 2회 응시(2014.12.19. 까지 1회, 2015.2.10까지 1회) 및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 취업준비도 검사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http://job1.khu.ac.kr)에서 검사 가능

8. 교육 세부일정 및 내용

차수	일시(매주 월요일, 매주화요일)	교육 내용
1차 교육	2014.12.22.(월)~23(화), 09시~12시	OT/채용동향/취업준비전략 등
2차 교육	2014.12.29.(월)~30(화), 09시~12시	직무분석/기업분석, 직무적성검사 특강
3차 교육	2015.01.05.(월)~06(화), 09시~12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1)
4차 교육	2015.01.12.(월)~13(화), 09시~12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2)
5차 교육	2015.01.19.(월)~20(화), 09시~12시	면접특강(1)-인성
6차 교육	2015.01.26.(월)~27(화), 09시~12시	면접특강(2)-토론/PT
7차 교육	2015.02.02.(월)~03(화), 09시~12시	면접특강(3)-심층
8차 교육	2015.02.09.(월)~10(화), 09시~12시	전체과정 Review

※교육 내용과 일정/날짜, 요일 및 시간은 다소 변경 가능

9. 문의사항  
- 프로그램관련: 취업진로지원처 윤필영(02-961-0167~0206)  
- 예치금 및 접수관련: 취업진로지원처 최선영(02-961-0167~0168)

###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기획



우리학교의 굵직한 사건들로 ① 개방이사 선임 문제 ② 등록금 3.7% 인상안 논란 ③ 주민의 공공기숙사 신축 반대 ④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⑤ 대학 평가 ⑥ 총여학생회를 둘러싼 존폐논란 등이 곁뒀다

# '총여 존폐'에서 '암초 만난 기숙사'까지

## '2014년 우리학교 핫 이슈'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2014년, 갑오년도 어느덧 막을 내리고 있다. 한 해 동안 우리학교는 다양한 일을 겪었다. 우리신문은 이번 학기 종간호를 맞아 구성원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주요 기사를 정리해보았다.

다사다난했던 가운데, 올 한 해에는 '리더십'과 관련된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먼저 지난 3월 초에는 법인이사회에서 일반이사 후보 2인의 이사 선임절차가 무산되면서 '관선이사' 논란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대학주보 제1561호에 게재된 '개교 이후 초유의 관선이사 우려' 제하의 기사는 온라인 조회수 1,712회를, 그리고 연이어 제1562호에 게재된 '2명 이상 이사 선임돼야 이사회 안건-윤석인 이사 후보, 교육부 '심의단계'' 제하의 기사는 온라인 조회수 1,044회를 기록하며 구성원들의 큰 관심을 반영했다.

지난 9월에는 총여의 존폐논란이 대두되기도 했다. 대자보를 통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양성평등연대 김동근(포스트모던음악학 2008) 대표와 국제캠 총여 남슬기(스페인어학 2012) 회장의 인터뷰 토론 기사(대학주보 제1576호 "총여 존속, 합리적 근거 없다")는 온라인 조

## 《온라인 기사 조회수 상위 10개 게시물》

기사명	조회수
총여학생회 존폐논란	6,541
CPA합격자 총 45명, 전년대비 8명 늘어	2,633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 9위, 한계단 올랐다?	1,744
대학특성화사업 2개 사업단 선정, 연간 17억원 지원	1,742
개교이후 초유의 '관선이사' 우려	1,712
축소된 사업규모로 첫발 내딛는 국제캠 SPACE21	1,677
지리학과 김중구 교수, 투병 끝에 별세	1,532
우리학교 취업률 '약화' 50.6%... 평가대학 중 24위	1,508
신·편입생 등록금 납부차액 환불	1,496
대운동장 공공기숙사 뜻밖에 암초만나, 임대업자 '공실보상' 요구	1,390

회수만 무려 6,541회를 모으며 캠퍼스 전체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기사에서 김 대표는 '총여와 생리공결제 폐지'를 주장했고, 이에 맞서 남 회장은 "총여는 여성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생리공결제는 '복지'의 차원" 등의 반박 주장을 펼치며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한편 올해에는 대학평가 결과와 대학의 내실이라는 두 가치를 두고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올해 우리학교는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 9위, '라이덴 랭킹' 9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

는 전년 대비 각각 한 계단, 세 계단 상승한 순위였지만, '순위' 뒤에 가려진 세부 지표는 도리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이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 이러한 실상을 담아 학생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교육여건을 전한 대학주보 제1563호의 '100명 이상 대형강의, 서울캠은 2013 대비 19배 증가' 기사와 제1565호 '해외파견 교비 '0'원 외국어대 타격 심해' 기사, 제1577호의 '화상강의 올상, '필기내용 안 보여요' 기사'는 각각 온라인 조회수 1,328회, 1,347회, 293회를 기록하며 구성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양 캠퍼스 SPACE21사업의 진척상황 역시 많은 구성원의 관심을 모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서울캠 공공기숙사 문제를 다룬 제1564호의 '대운동장 공공 기숙사 뜻밖에 암초 만나-임대업자 "공실 보상"요구' 기사와 온라인판 '기숙사 주민공청회 진행, 대안 없이 고성만 난무' 기사가 인기를 모았고, 국제캠 신공학관 디자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다룬 기사도 역시 지속적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매년 바라는 것이지만, 내년에는 올해 있었던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재정적 문제, 교육환경 개선 문제, SPACE21문제 등 산적한 여러 문제점들이 극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란다.

## ▶1면에서 이어짐

이동진 정후보가 발견한 문제는 ▲기표소에 유학생회 실무위원이 유권자와 함께 입소 ▲기표소에 후보자가 유권자와 함께 입소 ▲후보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 ▲투표함에 유권자 대신 투표용지를 넣음 등이다. CCTV에 남아있는 1시간 30분 분량의 자료에서만 무려 17건의 부정행위가 벌어졌다. 이후 기사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추가로 확인한 결과 기표소에 선관위원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6건 더 확인됐다. 정경대학 3층 출입구 투표소가 선거 3일째에만 설치됐고, 청운관과 정경대학 학생회실(골방)의 투표소는 CCTV로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하나의 투표소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문제가 적지 않아 전반적인 선거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정경대학 유학생회 측에 확인한 결과, '후보자'와 선관위원 등이 유권자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학생회 측은 이에 대해 "유학생 중 저학년 유권자의 경우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수준'일 정도고, 정경대학의 경우 전자투표와 종이투표를 병행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이 다수였던 만큼 이들에게 투표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유학생회 A 관계자는 "실무위원이 아닌 후보자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간 것은 큰 실수이고, 문제가 돼 다른 학생회 선거에 피해를 주게 돼 미안하다"면서도 "아직 선거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회의 책임도 분명하지만, 학교한테도 책임이 있다. 한국말 수준이 너무 낮아서, 한글도 못 알아볼 정도인 유학생이 존재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기표행위를 지켜보는 것은 선거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동진 정후보는 "재투표를 하더라도 한뼘도 선본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은 '선거불복'으로 비추어지지 않기 위해서인가?

"그렇다. 이것이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정경대학 선거과정의 부정행위는 최근 불거진 고려대 총학생회 선거부정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부정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정경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제기 신청에 대해 지난 2일 8명의 선관위원이 참석,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4대 4로 기각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했고, 사과문과 함께 향후 정경대학 유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의 가이드라인에 ▲선거 교육 ▲기표소 2인 이상 입장 불가 ▲다국어 안내문 제작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선관위 측은 "우리가 잘못이 있는데 반박하거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동진 정후보는 향후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져있지 않다"고 답했다. 선거가 끝난 자리는 눈이 왔다가 녹았고, 바람만 행하게 불고 있다.



## '2015 대입 정시전형 대비 학부모 진학설명회'

한파 탓에 두꺼운 옷을 걸친 학부모들이 지난 4일 평화의 전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주최한 '2015 대입 정시전형 대비 학부모 진학설명회'를 찾는 인파였다.

지난 3일 수능성적표가 배부되기 전부터 올해 수능이 '물수능' 논란에 휩싸일 만큼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더불어 대입전형 간소화 방침에 따라 입학정원 200명 미만 학과에 대한 분할모집이 금지되면서, 전년보다 지원기회가 감소하고 대학별 모집군이 연쇄 이동한 것도 학부모의 고민을 높인 원인이다.

이날 설명회장은 찾은 학부모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설명회를 찾았다. 지원하고 싶은 대학보다 갈 수 있는 대학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시작될 정시전형에서 우리학교는 '가'군에서 951명, '나'군에서 995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원외로는 3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재학생을 위한 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감면 혜택

■ 경희 재학생이 장례식장 이용 시 감면 혜택

•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동대문구 회기동)

- 재학생 본인상 50% 감면

- 재학생 직계상 40% 감면

- 홈페이지 : [www.kmcf.co.kr](http://www.kmcf.co.kr)

문의 : 02-958-9721 (24시간 상담 가능)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강동구 상일동)

- 재학생 본인상 30% 감면

- 재학생 직계상 20% 감면

- 홈페이지 : [funeral.khnmc.or.kr](http://funeral.khnmc.or.kr)

문의 : 02-440-8800 (24시간 상담 가능)

※ 공통적으로 감면범위는 안치료, 빈소사용료에 한함. (상조회사 이용 시는 제외)

■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대학교) 직영 장례식장

• 쾌적하고 편안한 장례 환경

• 임종에서 발인까지 현대적인 원스톱 장례의전서비스 제공

• 품질 좋고 저렴한 가격

• 친절하고 촌지 없는 투명한 장례식장 운영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서울C | 2015-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15-1학기 우정장학금을 수혜받으려면 「국가장학 1차」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가장학 1차 신청기간: 2014.11.20.(목)~12.8(월) 18시 교내장학 신청기간: 2014.12.1.(월)~12.31(수)

1.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2014. 12. (월) ~ 12. 31(수) [한달간]

- 신청대상: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 1. 기존 교내(입시/보훈/경희가족/고시 등) · 교외 계속장학제도 반드시 교내장학금 신청

2.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음.

3. 장학 선발자가 2015-1학기 미등록시 선발이 취소됨.

2. 신청방법

구분	내 용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유지신청] - 「교내장학금」 신청
1. 2015-1학기 우수장학, 우정장학, 모범장학, 방문사회장학 등 특정목적용 제외된 모든 장학	신청을 "2015-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으로 통합함.
2. 장학금신청서와 자(가)소개서는 온라인	으로 작성하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음.
3. 가계관한 증명서류 제출 생략	※ 단, 우정장학 수혜 희망 학생은 국가장학 1차 신청을 반드시 필해야 함.
4. 장학신청시 소속 단과대학에서 별도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3. 서류 제출 장소 (해당자에 한함)

구분	해당자 및 제출서류
소속대학 행정실	- 고시합격자(신규): 고시 합격증명서 1부
장학	- 장래학생 장래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학생정보)의 장래인 등록카드(사본 1부)
장소	- 보훈장학(신규):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지정 발행) 1부
학원지원 장학	- 경희가족장학(신규): 보호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기타 장학	※ 기존 계속장학(입시, 보훈, 경희가족장학) 중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기간에 신속히 신청요망

4. 지급 제한

장학금 지급규정에 위배된 자

- 지급방법 등록금 고지서에 학비감면

- 등록방법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등록을 필해야 함

※ 고지서 남입에이 "0"원인 전액 장학금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등록 절차(은행수납인)를 필해야 함

5. 참고사항

1. 2015-1학기부터 우정장학금은 장학행에서 지급함.

2. 장학생 선발기준(우수,모범,방문사회단체) 관련 세부사항은 학생 소속 단과대학(전공) 행정실로 문의

3. 교내·외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 불가 (이중수혜시 환수 조치. 단 등록금 범위 내의 국가장학금은 이중 수혜 인정)

4. 전과생의 경우 전출(전입)하는 학기에는 소속 단과대학 학부(과)에서 선발하는 우수장학, 모범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단, 우정장학금은 수혜 가능)

5. 계속장학생이 2015-1학기 휴학할 경우, 계속장학 외의 타장학수혜가 없을 경우에는 2015-1학기 등록을 하지않고 휴학 요망(이동필유특). 6. 위 기간 내의 장학금 미신청자는 2015-1학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외국어강좌

LEAP Program

가. 접수 기간 : 2014. 12. 8(월) ~ 2015. 1. 20(화)

나. 강의 기간 : 2015. 1. 26(월) ~ 2015. 2. 17(화)

다. 프로그램 일정

LEVEL TEST	2015. 1. 21(수) 17:00
입교식	2015. 1. 26(월)
Game Day	2015. 2. 6(금)
보강	2015. 2. 6(금) / 2015. 2. 13(금)
수료식	2015. 2. 17(화) 16:00
모집인원	한 반 정원 16명
강의대상	LEAP 초 · 중급 영어 구사자 LEAP Advanced 중 · 고급 영어 구사자
수강료	660,000원

라. 강의시간표

강의시간	LEAP	LEAP Advanced
09:00 ~ 10:20	Everyday Conversation	Discussion & Debate
10:30 ~ 11:50	Screen English	Book Club
13:00 ~ 14:20	Reading the World	Academic Writing
14:30 ~ 15:50	Practical Writing	Cultural Arts

※ 월 ~ 목(주4회) / 1일 6시간

※ 일정 및 시간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특전

-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 영문 수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중앙도서관 12월 문화프로그램 안내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는 12월 겨울을 맞아 다음과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대학의 문화적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초청작가 박종일 사진전시회'와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초청작가 프로그램, 박종일 작가 사진전시회

1. 내 용 : 백두산 및 독도 사진 작품 전시

2. 일 자 : 2014. 12. 1(월) ~ 12. 8(월)

3.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제13회 음악회

1. 내 용 : 포스트모던음악학과 공연

2. 일 자 : 2014. 12. 2(화) 12:00 ~ 13:00

3.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제12회 전시회

1. 내 용 : 중앙사진동아리 파인더 34회 정기 전시

2. 일 자 : 2014. 12. 9(화) ~ 12. 11(목)

3.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재능기부 프로그램, 제12회 전시회

1. 내 용 : 서수원(도서관) 서예작품 전시

2. 일 자 : 2014. 12. 12(금) ~ 12. 17(수)

3. 장 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도서관 재능기부 문화프로그램, 당신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 창출을 위한 장기계획으로 상설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 비롯하여 학생 개인이나 집단은 공연(음악, 연극 등), 전시회(그림, 사진, 도예 등) 등을 통해 재능을 자유로이 펼쳐 보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 방법 : 이선우(☎ : 031-201-3221, E-mail : [asqa@khu.ac.kr](mailto:asqa@khu.ac.kr))

2. 날짜 : 신청 접수 후 기준 행사 날짜와 조정

3. 행사 내용 : 자유 형식으로 하되 타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을 범위(예: 연주, 전시)

4. 행사 위치 : 도서관 1층 로비

5. 공연 시간 : 12시 ~ 13시 사이에서 조정

※ 전시회의 경우 상의 후 일정 조정 가능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칼럼

‘달-지구 우주탐사’



문용재  
우주과학과 교수

지난 2013년 9월, 교육부는 BK21 플러스 글로벌 인재양성 유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학교에서는 문용재(우주과학) 교수 연구팀의 ‘달-지구 우주탐사’ 사업이 선정됐으며 매년 9억 2000만 원씩 7년간 지원 받는다. 이에 문 교수를 만나 ‘달-지구 우주탐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목표를 들어보고자 한다.

# 소형 위성으로 달 탐사를 수행한다

우주탐사학과와 BK21 플러스 ‘달-지구 우주탐사’ 사업단(연구책임자: 문용재 교수)은 지난 2013년 9월 이후부터 오는 2020년 8월까지 매년 약 9억 원, 총 약 60억 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다. 세계 최초로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달 탐사를 수행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이 사업단에는 우주탐사학과 교수진 13명(해외학자 5명), 연구박사와 계약교수 8명(외국인 5명), 석·박사급 대학원생 52명(214년 11월 기준)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최초의 인공위성, 인류의 우주유영 및 달 착륙, 각 행성 탐사위성 및 우주왕복선 발사, 우주정거장 건설 등으로 진행되어 온 우주개발은 최근 달 탐사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40년 전 미국과 구소련의 각축으로 시작된 달 탐사는 80년대 이후로 20 여 년간 소강상태에 있었으나 지난 10년간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 등과 더불어 다시 미국이 달에 탐사선들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이제 아시아에서도 우주경쟁시대가 도래한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약 20여기의 위성들을 개발하면서 우주개발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 국내 달 탐사계획에 크게 기여할 달-지구 우주탐사 사업단

정부가 발표한 제1, 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과 우주개발 세부 실천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듯 달 탐사는 한국 우주개발에서 가시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지향 목표이다. 특히 2014년 들어 정부에서 수정 발표한 우주개발계획에 따르면, 한국형 발사체와 달 탐사 위성개발 일정은 기존 2025년에서 2020년으로 5년이 단축되어 논의되고 있다. 사실상 달 탐사는 현재 시점에서 국가 우주개발 계획에 의거한 시의성이 담보되어 있는 연구주제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학교 사업단의 ‘초소형 위성 이용한 국제 공동 선행 달 탐사 연구’는 이전까지 저궤도 위성 수준에 국한되었던 국내 우주기술을 향후 본격적인 달 탐사에 필요한 통신, 항법, 추진체 분야까지 확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심우주(deep space) 개발기술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귀중한 기술경험과 인력양성의 기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학교 사업단은 지난 5년간 WCU(세



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달궤도우주탐사사업(2008~2013년)을 통하여 향후 달 탐사에 필요한 초소형 위성 및 과학 탑재체 기술개발을 목표로 연구해온 바 있다. 이 당시 개발된 3kg급 초소형 위성은 여타의 동급 초소형 위성들과 달리 최초로 자세제어가 가능한 다중 위성이며 기존 중대형 첨단 과학위성들의 탑재체 성능을 훨씬 넘어서는 새로운 조정량 입자측정기와 지자기측정기를 구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위성은 지구 저궤도 시험운행을 위하여 지난 2012년 9월에 1기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발사 이후로도 연구는 계속되어, 지난 2013년 11월 우주탐사학과에서 자체 개발한 CINEMA 위성 2, 3호기가 발사 성공한 데 이어 오는 2015년에는 KHUSAT-03(SIGMA) 초소형 위성 1기가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번 ‘달-지구 우주탐사 사업단’의 목표는 현재까지의 성과를 넘어 세계 최초로 초소형 위성을 달에 보내고 새로운 과학기술 영역을 구축하는 데 있다. 사업단에서는 이에 대해 “우주과학기술 역사에 새로이 기록될 만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자평한다. 우리나라가 비록 우주 분야에서는 아직 전반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에 부족한 형

편이지만, 초소형 위성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는 글로벌리더의 수준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실현해보아겠다는 의지다.

## 초소형 위성 속에 달을 향한 큰 꿈을 품다

기존 WCU사업인 달궤도우주탐사사업을 이어 받은 이번 ‘달-지구 우주탐사 사업’에서는 우리학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초소형 위성을 오는 2016~7년경에 달에 보내고자 한다. 초소형 위성 2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게 되면 이 위성은 달까지 가는 도중에 우주환경 연구를 수행하게 되고, 달에서는 달 표면의 자기장 이상 지역을 사상 최초로 직접 조사하여 그 구조 및 원인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본 사업단의 초소형 위성인 ‘TRIO-CINEMA(Triplet Ionospheric Observatory - Cubesat for Ion, Neutral, Electron, and MAgnetic fields)’는 개발 초기부터 미국 등 우주기술 해외 선진 국가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달 탐사의 방법론적 중요성을 간파한 여러 해외

연구기관들이 우리학교 사업단과의 공동연구를 먼저 제안해오기도 했으며, 현재 우리학교 사업단은 본격적인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위성본체 및 전자 부분은 우리학교 사업단에서 제작하게 되며, 탑재체는 우리학교 사업단과 미국 UC버클리 대학 연구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연구팀이 공동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 임무는 미국 UC산타크루즈 대학 연구팀과, 위성발사 및 달 표면까지의 운행은 미 항공우주국(NASA)의 에임스 리서치 센터와, 통신은 미국 제트추진 연구소(JPL)와, 그리고 추진체(propulsion)는 미국 MIT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동연구를 수행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서 추진하는 달 탐사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의미와 결과가 기대되며, 한국 우주개발에서 국제 공동연구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이번 BK21 플러스 달-지구 우주탐사 사업단의 비전은 ‘달-지구 우주탐사 글로벌 선도 연구’다. 특히 앞당겨진 달탐사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현황을 고려할 때 본 사업단 연구는 한국형 달탐사 계획을 대비하고 글로벌 수준의 우주탐사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 교양리포트⑭ [시민교육]

# 현장활동 안과 밖 시민이 있다



이명원  
휴머니티스칼리지 교수

시민교육은 청년들의 삶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현 사회의 이슈, 공정과 정의, 민주 시민과 사회 참여, 공동체 삶과 나눔 문화, 세계시민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활동사례를 살피는 후에 현장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이론습득뿐 아니라, 시민적 삶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시민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시민적 주체성과 덕성의 문제를 이론을 통해 사유하고 ‘자원적 현장활동’(이하 현장활동)을 통해 경험한다. 많은 경우 학생들은 현장활동에서 시민교육의 매력을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가치의 추상화나 사건의 역사화를 이론을 통해 사유하고 말하고 쓰는 일은 여러 형태의 지적 인내력을 요구하나, 중핵교과나 글쓰기 교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마되고 있다는 점에서 낯선 것은 아니다.

반면, 현장활동은 학생에게 낯설다. 교수가 의제를 설정하고 학생이 해결하는 식의 ‘문제해결능력’ 보다는, 학생들 자신의 ‘문제발견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등교육 과정 전체를 통해서 대개의 학생들은 던져진 문제들을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효율성을 선호해왔다. 그러나 문제의 발견은 효율성과는 결이 좀 다르다.

문제의 발견은 창조성과 비판적 사고를 요구한다. 사소한 것에서 비범한 가치를 발견해내고, 통념의 이면에서 날카로운 모순을 통찰해내며, 스스로를 ‘타자’의 자리에 배치하는 사고실험과 활동을 병행시킬 때에야, 은폐되었던 문제들이 해 아래 드러날



수 있다.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서 해법이 즉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사소해 보이는 문제도 몸을 움직여 탐구하다 보면, 감자냉쿨처럼 여러 제도와 법과 문화와 풍속과 결합된 ‘모순의 복합체’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의 발견 단계에서 대체로 학생들은 낙천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런데 정작 현장활동을 시작하면 ‘안’과 ‘밖’ 모두에 난제가 쌓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모둠별 현장활동은 ‘경쟁교육’이 아닌 ‘협력교육’이다. 이것은 조원들 간의 책임의 배분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자는 사회라는 교실의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모둠 안의 ‘내부’에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통을 둘러싼 미묘한 갈등과 타협의 기술을 모둠활동에서 연마하지 않는다면, 학기말에는 서로를 향해서 ‘프리 라이더’라고 비난하는 비극도 종종

발생한다.

현장에서 그들이 접하게 되는 것은 더 큰 장벽들이다. 조사연구를 위해 전화를 건 모든 기관의 담당자들은 ‘전화 돌리기’로 학생들을 골탕 먹인다. 담당자는 누구지? 학생들은 알쏭달쏭하다. 활동 대상과의 친밀성이나 신뢰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지속적인 현장활동에 기반해 대상과의 친밀감과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고급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장활동이 형식적이거나 일회적일 때, 학생들이 제시한 현장의 실태나 구조, 그 밖의 잡다한 정보는 상투적인 보도기사 수준에 머무를 확률이 높다.

대안이나 비전의 제시에 있어서도 ‘비교대상’을 설정해야 효과적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탐구하고 활동했던 의제들에 대한 대안은 법, 제도, 문화의 층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지역적 차원에서 비교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으며, 국가 간 또는 글로벌한 수준에서 상호 검토를 요구하는 것도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활동한 결과를 강의실의 청중들에게 유려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다. 강의실 안에도 시민이 있다.



스포츠



① 축구부는 U리그 왕중왕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 ② 농구부는 2014 농구대잔치에서 준우승을 거뒀다 ③ 야구부는 협회장기 대학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다양한 종목에서 강한 ‘사자군단’ 돋보여

2014 경희 스포츠 총정리

김윤철 기자 kycxellos@khu.ac.kr

2014년 우리학교 체육부는 다양한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핸드볼부는 ‘2014 핸드볼코리아 전국대학선수권대회’ 1차 대회 때는 원광대에 패해 준우승에 그쳤지만, 2차 대회 때는 우승을 거두며 그 명성을 날렸다. 농구부는 30년 동안 우리학교를 이끌었던 최부영 감독이 은퇴하며 성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2014 KB 대학농구리그’에서 정규리그 3위, ‘2014 신한은행 농구대잔치’에서 준우승을 기록하며 여전히 강력한 ‘사자군단’의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축구부도 ‘2014 카페베네 U리그’에서 조별리그 2위, 왕중왕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U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선보였다. 태권도부는 각종 대회를 휩쓸며 명실상부한 ‘태권도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야구부도 ‘제 69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기록하고 ‘2014 협회장기 대학야구대회 겸 전국체육대회 선발전’에서 준우승을 거두며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구기종목뿐만 아니라 양궁과 태권도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제 41회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에서 여자개인종합우승·남자5인단체 우승, ‘제 49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남·녀 종합우승을 거뒀다. 양궁부에서는 ‘제 32회 대통령기 전국남녀 양궁대회’에서 남자단체 우승, 여자단체 3위를 기록했다.

〈2014 경희스포츠 주요 종목 경기결과〉			
	대회명	대회기간	대회 결과
축구	2014 카페베네 U리그	4.11 ~ 10.10	조2위(7승4무3패)
	2014 카페베네 U리그 왕중왕전	11.6 ~ 11.21	3위
농구	2014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3.24 ~ 6.19	정규리그 3위
	2014 아시아·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7.4 ~ 7.10	4위
	2014 KB 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플레이오프	8.25 ~ 9.7	4강
	2014 신한은행 농구대잔치	11.27 ~ 12.5	준우승
야구	2014년도 회장기 전국대학야구추계리그전	4.1 ~ 4.15	3위
	제69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5.6 ~ 5.16	3위
	2014 협회장기 대학야구대회 겸 전국체육대회 선발전	5.19 ~ 5.22	준우승
	2014 회장기 전국대학야구하계리그전	6.13 ~ 6.27	4강
핸드볼	2014 핸드볼코리아 전국대학선수권대회	3.21 ~ 3.26	준우승
	2014 핸드볼코리아전국대학선수권대회 2차대회	8.23 ~ 8.31	우승
배드민턴	2014 전국볼찰대학배드민턴리그전	3.21 ~ 3.28	4강
	57회 전국여름철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4.29 ~ 5.7	8강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4 화순 전국학교배드민턴선수권대회	7.22 ~ 7.30	단체 3위
태권도	제41회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	5.14 ~ 5.21	여자개인종합우승, 남자5인단체 우승
	제44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국가대표선수선발예선대회	6.14 ~ 6.17	남여 종합준우승, 1위 5명
	2014 경주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7.10 ~ 7.16	1위 3명
	제49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8.16 ~ 8.19	남자 종합우승, 여자 종합우승
	제23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5년도 국가대표선발예선대회	8.19 ~ 8.23	여자 종합우승, 남자 종합3위
양궁	2014 국가대표 5차 선발전	3.19 ~ 3.26	전훈영(스포츠지도학 2013) 국가대표 선발
	제31회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6.21 ~ 6.26	전훈영 2위, 박성호 2위
	제17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	7.8 ~ 7.11	남자단체 1위, 여자단체 3위
	제32회 대통기 전국남여 양궁대회	7.16 ~ 7.21	남자단체 1위, 여자단체 3위
	2015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8.27 ~ 9.2	여자단체전 준우승, 전훈영 1위

‘2014 농구대잔치’, 상무 만나 아쉬운 준우승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우리학교 농구부가 지난 5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신한은행 2014 농구대잔치’ 결승전에서 상무(국군체육부대)를 만나 71-91로 패해 아쉽게 준우승했다.

우리학교 농구부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된 ‘신한은행 2014 농구대잔치’에서 연세대, 동국대, 상명대를 꺾고 A조 1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지난 4일엔 B조 2위로 예선을 통과한 고려대를 준결승전에서 78-66으로 꺾었다. 이날 ‘빅맨’ 김철욱(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는 높이를 앞세워 22득점 11리바운드 2블록슛으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는 만점 활약을 선보였다. 가드진의 활약도 돋보였다. 성건주(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는 18득점 7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최장진(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도 14득점 3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올려 팀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5일 열린 결승전에선 연세대를 꺾고 올라온 상무와 맞붙었다. 1쿼터는 22-18로 상무에 4점차로 앞서나갔다. 한희원(스포츠지도학 2011)은 3점슛과 속공으로 경기 초반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또한 성건주, 김철욱 선수가 잇달아 활약하며 쿼터를 마쳤다.

2쿼터는 김철욱과 한희원이 특유의 활동량을 선보이며 득점을 올렸고, 최장진 선수도 날카로운 드리블로 상무의 수비를 공략했다. 그러나 2쿼터부터는 상무의 공격력이 살아나며 36-40으로 전반전을 끝냈다.

3쿼터 초반에 우리학교는 조직적인 움직임を 보이며 43-43으로 동점까지 추격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승부는 3쿼터 중반에 갈렸다. 우리학교는 3쿼터 중반 수비 집중력을 잃으며 상대에게 연속 득점을 허용했고 58-67의 스코어로 4쿼터를 맞았다. 4쿼터 초반, 팀의 골밑을 책임지던 김철욱 선수가 5반칙 퇴장까지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한희원과 최장진이 외곽을 공략하며 추격의 불씨를 살렸지만 승부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71-91로 패배하며 준우승으로 농구대잔치를 마무리했다.

\*더블더블 : 농구 경기에서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블록슛, 가로채기 5개 부문 중 2개 부문에서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는 것.

### 201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국제)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개설과목 확인	2014. 11. 17(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학번부여(학점교류생)	2014. 12. 03(수)	SMS 안내 문자 발송※ 학점교류생에 한함
수강신청기간	2014. 12. 11(목) 10:30 ~ 12. 15(월) 17:00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 클릭
배강공고	2014. 12. 15(월) 12:00 (1차)2014. 12. 19(금) 09:00 (2차)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4. 12. 16(화) ~ 12. 18(목) 16시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장정기간 (배강과목 수강생)	2014. 12. 15(월) ~ 12. 17(수) 17시	휴머니티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배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4. 12. 22(월) ~ 2015. 01. 14(수)	
성적결정일	2015. 01. 16(금) 부터	

**2. 개설기간 및 수업안내**  
가. 개설기간 : 2014. 12. 22(월) ~ 2015. 01. 14(수) [16일간]  
나.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캠퍼스	1학점 (실기)	1교시	10:00~11:50	국제캠퍼스	1학점/3학점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2교시	13:00~14:50				
	2학점	1교시	10:00~11:50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4:50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5:45			

다. 개설과목 수업 시간표 조회 : 2014. 11. 17(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개시면에 공지  
라. 강의계획서 조회 : 2014. 11. 17(월)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링크 클릭

**3. 학점교류(타대학 학생이 본교 개설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가. 추천기한 : 2014. 11. 28(금) 17:00 까지  
나. 학번부여 : 2014. 12. 03(수) SMS 발송 문자 발송

**4.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기간 : 2014. 12. 11(목) 10:30 ~ 12. 15(월) 17:00  
나. 수강가능 학점 : 최대 6학점  
※ 학점교류, 국제교류자를 통한 학학연수, 단과대학 현장 연수활동 또는 Global Collaborative (구 Penn-KH) 프로그램과 계절학기 동시 수강 가능  
※ 단 수강가능 학점(6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다. 배강 공고**  
1) 1차 : 2014. 12. 15(월) 12:00 (1차)  
2) 2차 : 2014. 12. 19(금) 09:00 (2차)

**후마니타스칼리지**

라. 수강신청 방법 : 정규학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동일)  
※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계절학기 수강신청 배너 클릭→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5. 수강등록**  
가. 등록금 납부기간 : 2014. 12. 16(화) ~ 12. 18(목) 16시  
나. 등록방법 :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예부 중 [계절학기 등록금 안내] 참조  
1) 입학사정 : 학년) 2014학년도, 학기) 겨울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2) 조회내용 : 신청과목과 납부 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나은행 가상계좌번호 확인  
다. 납부방법 : 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  
라. 등록금액 : 1학점당 89,000원  
마. 유의사항  
1) 등록금 납부 전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배강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납이 불가하므로 등록기간 내에 완납하기 바랍니다.

**6. 등록 후 수강 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수강포기기간	환불금액	수강포기방법
수업개시일 전까지	2014.12.19(금) 17:00	전액 환불	휴머니티스칼리지 행정실 방문→'계절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작성(본인명 의 통장 사본 동봉)※ 폐강과목수강자 포함
수업개시일부터 1/3 경과 전	2014.12.22(월) ~ 12.23(월) 17:00	수강료 2/3환불	
수업개시일 1/3경과한 날부터 1/2 경과 전	2014.12.30(화) ~ 2015.01.02(금) 17:00	수강료 1/2환불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수강 취소 불가함)		

\*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바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가. 개설기준 : 전공 10명 이상, 교양(기초/배분/자유아수) 20명 이상  
나. 전공 강좌 개설여부는 각 단과대학 결정사항이므로 해당 전공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다. 2014학년도 2학기 현재 수강 중인 강좌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불가함  
라. 2014학년도 1학기(포함) 이후 강좌 중 B0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계절학기 재수강신청을 불가함  
마. 수강 신청기간 이후 수강강좌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수강취소만 가능)  
바. 배강과목 수강자는 환불/수강정정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휴머니티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사. 계절학기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아. 계절학기 수강은 졸업 전 통산 8회, 5년제는 통산 10회, 6년제는 통산 12회로 하므로, 편입생은 그 절반으로 함  
자.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시 유의사항  
1) 휴학 중 2회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 가능 (편입생은 휴학 중 1회)  
2) 졸업유예자는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을 불가함  
3)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학점이 충족되지 못하여 복학하기에는 필히 등록하여야 함

**8. 문의처**  
가. 서울 휴머니티스칼리지 행정실 02)961-9311, 9339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2층  
나. 국제 휴머니티스칼리지 행정실 031)201-3401~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 5층

### 2015학년도 생활관(우정원/제2기숙사) 안내

**2015학년도 생활관(우정원/제2기숙사) 입사신청 안내**  
[우 정 원]  
1. 신청기간 : 2014년 12월 8일(월) ~ 12월 26일(금)  
2. 신청방법 :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khu.ac.kr) 신청  
3. 합격자발표 : 2015년 1월 19일(월) 예정 (생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페이지 통해 개별확인)  
4. 홈페이지 신청 : 2015년 2월 2일(월) ~ 2월 9일(월) 예정  
5. 장기입사 : 2015년 2월 27일(금) ~ 2월 28일(월) 예정  
6. 거주기간 : [학기] 2015년 2월 27일(금) ~ 2015년 6월 19일(금)  
[연간] 2015년 2월 27일(금) ~ 2016년 2월 3일(수)  
[제2기숙사]  
1. 신청기간 : [수시] 2014년 12월 6일(토) ~ 2014년 12월 16일(화)  
[정시] 2014년 12월 30일(화) ~ 2015년 1월 11일(일)  
2. 신청방법 :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khu.ac.kr) 신청  
3. 합격자발표 : 2015년 1월 19일(월) 예정 (생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페이지 통해 개별확인)  
4. 장기입사 : 2015년 2월 18일(수) ~ 2월 19일(목) 예정  
5. 거주기간 : [학기] 2015년 2월 18일(수) ~ 2015년 6월 19일(금)  
[연간] 2015년 2월 18일(수) ~ 2016년 1월 29일(금)  
※ 입사생 오리엔테이션 : 2015년 2월 26일(목) 예정 (참석필수)

**2015학년도 생활관(우정원/제2기숙사) 장학생신청 안내**  
[우 정 원]  
1. 신청기간 : 2014년 12월 8일(월) ~ 12월 26일(금)  
2. 신청대상 : 학부재학생  
3. 서류제출 : 우정원 사감실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FAX 불가)  
등기우편은 12월 26일(금) 도착 분 까지 접수  
[제2기숙사]  
1. 신청기간 : 제2기숙사 입사신청 기간과 동일  
2. 신청대상 : 학부재학생  
3. 서류제출 : 생활관 사감실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FAX 불가)  
등기우편은 1월 11일(일) 도착 분 까지 접수

**2015학년도 생활관(우정원/제2기숙사) 생활멘토 모집 안내**  
1. 신청기간 : 2014년 12월 4일(목) ~ 12월 12일(금) 17시까지  
2. 신청방법 : 해당 사감실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인터넷신청 불가)  
3. 지원서류 : 생활멘토 지원서, 성적증명서, 활동계획서, 사약서  
(해당 기숙사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양식 다운로드)  
4. 합격자 발표 : 2014년 12월 16일(화) 18시까지 개별통보  
5. 면 집 일 : 2014년 12월 22일 또는 23일 예정  
6. 활동기간 : [학기] 2015년 2월 2일(월) ~ 2015년 7월 31일(금)  
[연간] 2015년 2월 2일(월) ~ 2016년 1월 29일(금)  
7. 해 턱 : 생활멘토 장학금 지급 (기숙사비 반액 또는 전액)  
생활관(우정원/제2기숙사) 우선선택, SMS발송서비스, 활동확인서 발급 등  
※ 장학 중 생활멘토 교육 및 입사생 오리엔테이션 참가 필수  
불참 시 생활멘토 활동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생활관 홈페이지(http://dorm.kh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캠퍼스 생활관**